

57

가족에 관한 새로운 탐구

매체에 등장하는 가족 서사를 중심으로

손혜진 자치분권센터 연구원
raha@makehope.org

No. 57
2020.09.24.

희망이슈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시민에게 공유하는
이슈페이퍼입니다.

*
희망이슈

모든 시민이 연구자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정부나 기업의 출연금 없이
설립된 민간독립연구소입니다.
시민의 아이디어 제안과 후원, 활동 참여로
열린 연구와 실천을 지향하는
싱크앤두탱크 Think & Do Tank 로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변화의 원동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모든 시민이 자신의 일상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찾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를 열고자 합니다.

세대와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하는
강연과 워크숍을 열며, 1인 연구자와
사회혁신가를 성장시키고,
지원하는 시민참여형 연구소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통일된 형태의 가족에게만 '정상성'을 부여하는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는 가정 내 고정된 성 역할로 인한 성차별, 가부장적 가족주의, 개인의 자율성이나 존엄보다 가족의 유지가 우선인 가족 책임주의 등 넓은 범위에서 다양한 차별과 불평등을 발생시켰다.

그러나 최근 매체에 등장하는 가족의 서사는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 균열을 내고 있다. 가족 앞에 '조립식', '분자', '공동체' 등의 수식어를 붙이며 대안적 가족을 소개하고, 혈연과 혼인 중심으로만 정의하는 가족의 의미와 구조에 문제를 제기한다.

매체가 주목하는 가족의 서사는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함과 동시에 특정 사회 현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매체를 살펴보는 것은 시대 및 사회에서 바라보는 가족의 상을 인식하도록 만든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이에 본 희망이슈에서는 매체에 등장하는 가족 서사를 통해 기존의 가족과 새로 등장하는 가족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영화 '어느 가족', 책 『아무튼, 언니』,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셋이서 집 짓고 삽니다만』 등을 보면 새로운 가족에 대한 담론으로, '선택'과 '재구성'이 중요하게 자리 잡았다. 즉, 최근 매체 속 가족 구성원은 '선택'할 수 있으며, 경제적 역할, 가사 노동 등 가족의 기능과 역할이 고정된 게 아니라 질서나 규칙을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

복잡한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적 가족을 제안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매체를 통해 각각의 가족 서사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발견하는 과정은, 그동안 집'안'의 문제로 남겨졌던 가족이라는 주제를 사회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이와 같은 시도가 쌓여 가족이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 위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삶에 대한 고정관념, 도덕적 규범, 일상의 실천 같은 문화적 의미와 이념이 지배하고 있음을 깨닫고, 이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 가족 구성 원리의 변화, 변화를 위한 지점과 방법 등을 모색할 수 있음을 기대한다.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의 해체

매체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동시에 특정 사회 현상을 보여준다.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비추는 매체들은
 우리 사회의 가족에 관한 인식은 물론
 새로운 가족상에 관한 고민을 던지고 있다.

한국영화에서 가족은 1990년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기존의 전통적이고 가부장적인 한국 사회 가족의 틀을 파괴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소개되기 시작되었다. 한국영화의 새로운 흐름을 형성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기존의 관점과 시각에 머물러 있는 혈연 중심의 '정상' 가족에 대해 문제점을 드러내고 대안적 재구성을 제시한다 (진환, 2009: 70).

영화뿐만 아니라 출판 영역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시작됐다. 엄마, 아빠, 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이 아니라 2인 여성 가족을 조명하는 책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족주의 문화가 아동 학대 등 사회 문제의 원인임을 고발하는 책 『이상한 정상 가족』, 돌봄에 대한 가족의 희생을 드러낸 『아무튼, 언니』 등이 출판되어 다양한 가족의 이야기와 문제점을 소개했다. 특히, 책 『이상한 정상 가족』의 저자는 자신의 서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논문 등을 통해 돌봄의 책임이 공공서비스로 확장되어야 함을 제시한다.

이러한 흐름은 가족 문제를 사회 구조 안에서 바라보는 시선을 던져준다. 기존에 돌봄의 의무, 가정 폭력, 부모와 자식 간의 헌신과 보답의 의무 등 집 '안'에서 벌어진 가족 문제가 사회 문제라는 인식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다.

매체는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함과 동시에 특정 사회 현상을 비춘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양한 가족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매체들은 우리 사회의 가족에 대한 인식은 물론 새로운 가족의 상에 대한 고민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자리잡혀 있는 한국 사회는 엄마, 아빠, 그리고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핵가족을 '정상 가족'으로 보고, 한 부모, 다문화, 동성 결혼 등의 가족 형태를 '비정상'으로 규정해왔다.¹

하지만 앞서 소개한 두 책과 같이 최근 매체에서 등장하는 새로운 가족 형태와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 대한 고발은 통상적이고 관념적으로 바라본 '가족'에 균열을 내는 시도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매체에 등장하는 가족을 살펴봄으로써, 과거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한 가족이 '비정상'이 아님을 인식하고, 새로운 가족을 '정상'과 '비정상'의 범주로 나누는 등 누군가가 구분 짓고 정의할 사안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¹ 최은희 브런치글 내용 참고. <https://brunch.co.kr/@artinsight/858>

이들 매체 속 화자들과 같이 ‘비정상’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개인의 서사를 꺼내는 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 이러한 시작은 다른 이들에게 또 다른 서사를 꺼낼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지속되는 서사의 축적은 변화의 주요한 동력이 된다.

본 희망이슈에서는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해체, 가족에 대한 일방적이고 전통적 관념에 의한 개인과 사회 문제의 해결 등을 위해 가족의 서사를 꺼내는 작업의 필요성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전제에서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가 가진 문제를 조명하며, 이러한 이데올로기가 만드는 차별과 배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최근 영화와 책 등 매체에 소개된 새롭게 등장하는 가족의 서사를 통해 다양한 문제와 해결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매체 속 새로운 가족 형태를 통해 ‘대안적’ 가족의 모습을 제안한다.

II.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의 문제

엄마, 아빠, 그리고 정상 자녀로 구성된 전형적인 가족을 ‘정상’ 가족으로 보는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는, 가족을 혼인과 혈연중심으로 바라본다. 이는 이성애 중심의 혼인만을 인정하고 가정 내 고정된 성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가부장적 질서를 유지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정 내 발생하는 문제, 복지 부담 등을 가족에 전가하는 가족 책임주의를 유지 시키는 힘으로 작동했다(가족구성권 연구모임, 2008: 21).²

가부장적 가족주의의 문제

“한국의 가족주의는 가구 중심의 부계혈통과 가부장적 질서, 위계적인 가족관계에 기초하며, 가족 결속력과 가족 중심성의 강화를 통한 가족의 사회적 성공을 지향한다(백진아, 2009: 216).” 부계혈통과 가부장적 질서는 가족이라는 집단을 중심에 두고 구성원의 개인성을 소멸시킨다. 또한, 가장을 중심으로 가족이 기능하면서 가족 구성원 간 균등하고 평등한 관계보다 권력과 서열 관계로 가족을 유지한다.

그뿐만 아니라 가부장적 질서는 가족 내 권력과 서열 관계를 유지하기

² 근래에는 이러한 가족에 대한 비판적 분석의 토대 위에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는 논의가 가세하면서 복지를 가족에 일임하였던 기존의 가족 책임주의에 대한 비판과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인정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제출되고 있다.

위해 고정된 성 역할을 부여한다. 남성은 임금노동을 통해 가장의 역할을, 여성은 가사 노동과 돌봄의 역할을 요구받았고, 이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으로 이어짐과 동시에 여성에 대한 차별을 가져왔다. 임금 노동을 하는 남성은 노동시장 안에 속하며 공적 영역에 존재하고, 가사 노동을 하는 여성은 가족이라는 사적 공간 안에서 존재하게 된다.

이와 같은 물리적으로 가사 노동이 이뤄지는 집이라는 공간이 여성의 고유한 장소라는 생각은 여성은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사회적 경제활동은 남성과 비교하면 이차적이라는 관념을 만들었다(진환, 2009: 11).

무엇보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한하고 집이라는 물리적 공간 속에 여성의 역할 을 가둬 여성은 공적인 영역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재할 수 없음을 강요했다. 이러한 강요는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더라도 저임금 등 노동시장에 불리한 위치에 처하는 사회 문제로 이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여성성, 남성성 등 전통적 성 역할 프레임은 다양한 가족의 등장을 막는 요소로 작용했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서 남성의 친밀성은 가시화되지 않아, 게이 공동체의 경우 함께 사는 사람이 애인일 거라는 가족들의 의심을 피하고자 현재 함께 사는 사람을 숨기며 살아가 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는 남성 간 관계는 공적인 관계로만 인식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처럼 왜곡되고 배타적인 프레임 안에 사회 구성원이 존재하면서, 프레임 밖에 서 있는 사회 구성원과 이들의 가족까지 무분별한 '비정상'의 영역이라 정의되고 구분된다.

가족 책임주의의 문제

정상 가족에 대한 뿌리 깊은 인식은 가족 구성원의 돌봄과 관련해서도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을 "혼인·혈연·입양 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가정'을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라고 정의한다.

가부장적 질서는 가족 내 권력과 서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정된 성 역할을 부여한다.

남성은 임금노동을 통해 가장의 역할을, 여성은 가사 노동과 돌봄의 역할을 요구받았다.

이러한 정의는 가족에게 부양과 양육 등의 의무를 부여한다. 그러나 돌봄은 가족의 의무와 국가의 복지적 의무를 연결하여 고민해야 한다. 즉, 가족만이 부양과 양육을 해야 한다는 맹목적인 가족 책임주의는 경계 할 필요가 있다.

맹목적인 가족 책임주의는 일부 국가 차원의 복지까지 가족 구성원에게 역할을 떠넘기며, 가족이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짐을 지우는 관계로 전락하는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점에서 가족 책임주의는 가족 구성 원이 서로 부양과 양육의 의무를 지는 것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

'부양의무제'는 이러한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 사례이다. 현행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의 수급자가 되려면 그 사람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수 준 외에도, 1촌의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호적상에 가족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 따로 사는 가족, 가족 구성 원으로부터 현실적인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 개인의 소득과 재산이 수 급자에 해당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실제 이러한 한계로 관련 급여를 받지 못해 자살한 송파 세 모녀 사건³은 부양의 책임이 일차적으로 가족에게 있음을, 이러한 강제가 가족이 서로에게 짐을 지우는 관계로 전락하게 됨을 아프게 보여주었다(박용하, 2019).

³ 2014년 2월 26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 한 단독주택 지하에 세 들어 살던 60대 여성과 30대 딸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사건.

III.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의 해체 시도

앞서 강조한 것처럼 매체는 그 시대의 사회, 정치, 문화를 생산하고 발현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매체에서 소개되는 가족은 당시 사회에서 일반화된 가족을 구체화한 표본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매체에서는 개인적이고 내밀했던 가족의 서사를 드러내며 가족의 상을 가족에 대한 인식을 변화하고자 하는 시대적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매체 속 가족에 대한 서사는 기존의 프레임을 허물고 새로운 가족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는 곧 새로운 가족 이데올로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번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와 달리 최근 매체에서 등장하는 ‘가족 이데올로기’는 무엇을 시사하고 있는지 일부 매체를 통해 살펴본다.

‘정상’ 가족의 경계를 허무는 <어느 가족>

영화 <어느 가족>은 혈연이 아닌, 필요로 맺어진 ‘유사’ 가족을 보여준다. 할머니, 엄마와 아빠, 딸과 아들로 이루어진 가족 구성원은 서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이다. 유사 가족은 도둑질과 할머니의 연금으로 생계

최근 매체에서는 개인적이고 내밀했던
가족의 서사를 드러내며 가족의 상을
가족에 대한 인식을 변화하고자 하는
시대적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를 꾸려나가고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지만, 서로를 보듬고 돌봐준다. 친부모에게 학대를 받던 다섯 살 아이 유리를 길에서 데려오며 유사 엄마 역할을 하는 노부요는 “사랑하면, 때리지 않아, 사랑하면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말하며 꼭 안아준다. 동시에 자신이 이룬 가족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어.”

영화는 친모의 학대를 받은 혈연 가족과 유대와 사랑을 주는 유사 가족을 보여주며 ‘가족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동시에 사회에서 정의한 혈연과 혼인 중심의 정상 가족 안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것이 정상인지, 돌봄과 사랑이 있는 비정상 가족이 정상인지 묻는다.

기존의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에서는 노부요가 말했던 마음으로 연결되는 가족은 가족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영화 <어느 가족>은 혈연과 혼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정상 가족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포착하며, 가족의 의미를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확장 시킨다.

가족은 완성된 것이 아니라 결핍된 개인이 만나 완성하는 과정으로 새롭게 정의된다는 것을 영화는 시사한다. 가족의 기능적 의미보다 사랑과 연대의 의미를 중요한 가치로 보여준다. 다소 이상적일 수 있는 가족의 새로운 정의는 ‘가족 구성권’ 안에서 실현될 수 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원할 때 구성할 수 있다는 ‘가족 구성권’으로 가족을 정의한다면 가족을 유지시키는 것은, 피가 아닌 마음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건강가정기본법」은 혼인, 혈연 등을 중시하여 생활공동체로서의 가족의 확정을 제한한다. 하지만 영화 <어느 가족> 속 가족은 혈연이 아닌 삶으로 연결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며, 가족의 의미를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가족이란 정해진 것이 아닌 다양한 삶 속에서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혼인, 혈연만을 통한 ‘완성’이 아닌 결핍된 개인들의 결합으로 ‘완성해 나가는’ 것 역시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오늘날 제도가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삶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완성해 나가는 새로운 가족에 대한 재정의, 재구성 등을 고민하고 시도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가족 책임주의를 넘어서는 『아무튼, 언니』

“언니들은 아픈 오빠를 둔 동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였다. 나는 그들에게서 신과 없이 서로의 고통을 담담하게 대화로 풀어내는 법을 배웠다. 그 과정에서 나 자신이 누군가를 부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마음 내키는 대로 살 권리가 있는 하나의 생명이라는 걸 깨우쳤다”

- 책 『아무튼, 언니』 p.12

책 『아무튼, 언니』의 저자 원도는 아픈 오빠를 둔 동생으로, 자신이 부양의 책임을 오롯이 져왔던 서사를 주변에 꺼낸다. 이를 통해 돌봄의 책임을 가족이 감수하며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돌봄의 책임이 개인에게 주어지면서 어떻게 서로에게 짐이 되는지 가족 책임주의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이런 상상을 해본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사적 지원을 찾지 않아도 되도록 그동안 가족이 떠맡아온 돌봄과 약자에 대한 보호를 사회가 공공서비스로 책임져준다. 아이들도 어른과 마찬가지로 인격을 존중받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받는다.”

- 책 『이상한 정상 가족』 p.264

책 『아무튼, 언니』가 가족 책임주의 안에서 개인의 서사를 꺼냈다면 책 『이상한 정상 가족』은 가족 책임주의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사회가 나눠 가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다. 저자 김희경은 가족 책임주의가 정책이 가족 단위로 설계되면서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을 가족이 떠안는 방

식이었음에 문제를 제기한다. 나아가 사회 공공서비스로 책임이 옮겨가고, 가족이 서로에게 짐을 지우는 방식이 아닌 자율적인 개인으로 존재할 것을 제안한다.

책 『아무튼, 언니』의 저자 원도의 서사는 희생과 헌신이라는 숭고한 가치로 여겨진 부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있도록 환기하고, 책 『이상한 정상 가족』 저자 김희경의 이야기는 가족의 책임이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하는 이유와 근거의 타당성을 강조한다. 최근 출판된 이 책들에서는 가족 책임주의에 관한 성찰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부양이나 돌봄 등에 대한 사회적, 구조적인 변화를 국가에 요구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서사들은 가족이라는 이유로 당연시되었던 돌봄의 기능이 구성원 간 불균형을 만든다는 점을 드러내며, 돌봄의 제 의미와 가치가 변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돌봄과 관련 일부 영역이 사회 공공서비스로 책임이 옮겨가기 위해 뒤따라야 할 제도적 변화, 개선에 대한 고민을 남긴다.

정상 가족을 넘어서 새로운 가족의 등장

최근 매체에서는 여러 문제제기를 넘어 새로운 형태의 가족공동체를 소개하기도 한다. 이들은 제도권 내 가족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가족, 공동체로 살아간다.⁴ 이러한 존재는 혼인과 혈연중심 가족의 틀에서 벗어나 오늘날 왜곡된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가 가진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적인 새로운 가족의 등장을 의미한다.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속 조립식 가족

책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의 저자 김하나와 황선우는 결혼하지 않은 여자들이 함께 사는 2인 가족이다. 부부, 친척도, 자매도, 연인도 아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가족을 W2C4 원자와 원자가 만난 분자 가족이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W2C4는 여자(Women) 둘에 고양이(Cat) 넷을 뜻한다.

언뜻 보면 동거 가족으로 보이지만 이들은 ‘조립식 가족’이라 스스로 명명한다. 동거는 ‘법률이 정하는 방식의 혼인을 하지 않고 남녀가 결합하여 사는 형태 중 사실혼과는 달리 혼인 의사가 없거나 혼인 의사가 불명확한 남녀결합에 기반을 둔 관계’를 의미한다(김승권 외, 2004: 60).

4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가족 형태별 유형을 핵가족(부부, 부부와 미혼자녀, 편부모와 미혼자녀), 직계가족(부부와 양(편)친, 부부와 양(편)친과 자녀, 기타 가족으로 분류하고 있다.

혼인과 혈연중심 가족의 틀에서 벗어나
오늘날 왜곡된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가 가진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적인 새로운 가족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책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의 저자들이 꾸린 가족은 동성과 반려동물이 결합한 가족이다. 이성 간 결합을 의미하는 동거 가족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동거 가족에 해당된다.

또한, 저자들은 남성의 경제적 역할과 여성의 가사와 돌봄의 역할 구분을 파괴한다. 각자 경제적 부담과 돌봄의 부담을 균등하게 지내며 가족공동체를 유지한다. 이러한 조립식 가족은 앞서 제기한 가부장적 질서가 가진 문제들을 해소하는 가족 형태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생계와 부양의 책임을 분담하고 가정의 역할을 공동으로 지는 내가 ‘선택’해서 일구는 ‘평등’한 관계는, 고정된 성 역할과 가부장적 질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이서 집 짓고 삽니다만』 속 주거 공동체 가족

책 『셋이서 집 짓고 삽니다만』의 저자인 돌김과 부추는 부부 관계이고, 또 다른 저자 우영은 부추와 친구 관계이다. 한 부부와 친구가 함께 사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다. 이들은 ‘기본 생활권이 보장되는 적당한 면적에 주거인의 취향이 반영된 공간에서 살고 싶다’라는 소망으로 집을 짓고 주거공동체를 구축하며 살아가고 있다.

책 속 가족은 주거를 중심으로 모인 주거 공동체 가족의 형태를 띤다. 이들은 스스로 ‘주거 공동체’이자 ‘대출 공동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원룸을 제외한 대다수 집은 큰방 하나에 나머지 작은 방이 있는 구조다. 가부장적인 질서에 따라 가장인 부모가 안방을, 나머지 가족은 작은 방을 쓴다. 일반적인 집 구조마저 정상 가족에 기준을 맞추고 있는 사회에서, 이

들은 안방과 작은 방의 구분 없이 자신들에 맞는 집을 직접 짓고 살아가며 새로운 주거 공동체 가족을 현실화시킨다.

저자들은 공간을 함께 사용하면서 새로운 규칙과 질서를 만들며 주거라는 매개체로 연결된 가족을 일궈나간다. 사소하지만 가족, 가족 구성원을 위한 질서와 규칙은 제도권 내 가족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동시에 이들이 일구는 주거 공동체 가족은 직접 세우는 질서와 규칙을 통해 가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해체한다. 즉, 이들은 각각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족을 위한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을 직접 고민함으로써 불필요한 헌신과 책임을 강요하는 오늘날 왜곡된 가족 책임주의 문제를 해소하며 대안적 가족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새로운 가족의 제도적 한계

위와 같은 조립식 가족, 주거 공동체 가족은 가족으로 존재하지만, 가족으로서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지원에서는 제외된다. 실제 돌봄, 부추, 우영이 이룬 주거 공동체 가족은 가족의 매개체인 주거를 위한 제도적 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다. 현재 국가와 제도는 생활기본권인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지원제도를 시행하지만, 혼인, 혈연중심의 제도권 내 정의된 가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자들의 서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제도의 부재는 새로운 가족의 존재를 위협하는 현실적 문제이다.

새로 등장한 가족공동체는 기존의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가 가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적 가족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법적으로 인정되는 가족은 아니다. 결국, 이는 또 다른 차별과 배제를 발생시킨다. 실제 책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의 저자들은 공동생활양식을 공유하는 가족이지만, 가족 구성원이 아팠을 때 법적인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술 동의서를 작성할 수 없었던 사례를 소개한다. 마찬가지로 책 『셋이서 집 짓고 삽니다만』의 저자 우영, 부추, 돌김 또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세 사람의 '공동명의'가 발목을 잡아 지원을 받지 못했다. 해당 사업은 세대주가 단독으로 신청해야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왜곡된 프레임을 넘어 존재하는 가족이 실존하는 제도라는 수단을 통해 또다시 '비정상'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 이는 변화를 위해 새로운 가족의 존재와 서사뿐만 아니라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논의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을 확인시켜준다.

최근 매체를 통해 가족이란 정상 가족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존재하는 다양한 가족을 비정상적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시에,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가 가진 가부장적 가족주의, 가족 책임주의하에서 성차별, 복지 사각지대 등의 사회 문제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최근 매체에서 등장하는 가족의 서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관해 물음을 품게 된 구성원을 통해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의 다양한 문제를 수면위로 올리는 작업을 내포하고 있다. 매체는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가족의 서사를 소개하며 대중에게 가족의 의미를 던지고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의 대안으로 새로운 가족의 가능성을 제안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새로운 가족은, 법과 제도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아 비정상 가족의 영역에 머무르고 있다. 매체를 통해 새로운 가족의 서사를 드러내고 대중의 인식변화를 가져왔다면 그다음 단계는 제도적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

사회적가족 제도, 「생활동반자법」 등 새롭게 등장한 가족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본 희망이슈에서는 다루지 못했다. 사례로 든 매체에 등장한 일부 가족에 대한 서사, 새로운 가족의 소개만으로는, 내밀하고 오래 뿌리 내려온 정상 가족의 의미와 문제를 명확히 드러내고, 새로운 가족의 형태의 필요성, 제도 개선의 방향 등을 제안하는 데에 한계점도 있다.

많은 사람이 불평등과 차별이 존재하는 가족 서사를 보여줄 때,
개인적인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전환되며
정상의 범위는 넓히는 것을 넘어
정상이란 무의미한 정의 자체를 해체할 수 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가족 안의 문제로만 여기며 바깥으로 꺼내기 어려웠던 가족의 이야기, 이슈들을 꺼내는 시도는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시도를 통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가족을 호명하며 정상 가족의 정의를 해체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상 가족만을 사회와 제도 속에서 정상으로 인정하는 사회 속에서, 각자가 겪은 가정 내 불평등과 차별을 꺼내는 일은 가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불평등과 차별이 존재하는 가족 서사를 보여줄 때, 개인적인 문제는 사회적인 문제로 전환되며 정상의 범위는 넓히는 것을 넘어 정상이란 무의미한 정의 자체를 해체할 수 있다.

물론 매체를 통한 서사의 전달,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지속적인 공감과 연대는 복잡한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등의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움직임을 통해 가족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이지만 동시에 인간의 삶에 대한 고정관념, 도덕적 규범, 일상의 실천 같은 문화적 의미와 이념이 지배하고 있음을 깨닫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 가족 구성원리의 변화, 변화를 위한 지점과 방법 등을 발견해 나갈 수 있길 기대한다.

국내문헌

단행본

김희경, 2017. 『이상한 정상 가족』. 동아시아.

원도, 2020. 『아무튼, 언니』. 제철소.

김하나·황선우, 2019.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 위즈덤하우스.

우영·부추·돌김, 2020. 『셋이서 집 짓고 삽니다만』. 900KM.

논문

가족구성권 연구모임, 2008. “대안적 가족제도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집”.

진환, 2009. “영화 속 가족의 해체와 대안적 재구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성의 역할: 2000년대 한국영화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승권·양옥경·조애저·김유경·박세경·김미희, 2004. “다양한 가족의 출현과 사회적 지원체계 구축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2004-13).

백진아, 2009. “한국의 가족 변화: 가부장성의 지속과 변동”. 현상과 인식 33(12). 204-224.

기타

최은희, 2020. “우리 가족은 비정상이라 납니다”. <https://brunch.co.kr/@artinsight/858>

관련기사

박용하, 2019. “[송파 세모녀 사건 5년, 아직 못 풀 빈곤의 숙제]” “수급자 멀어트리는데 그들 임무 같아”...가난 외면한 복지행정”. 경향신문 (2/19).

더 많은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희망을 나눠주세요.



Together

▶ 후원회원 신청

02-6395-1415
give@makehope.org

▶ 후원계좌

하나은행 271-910002-36004
예금주: 희망제작소

▶ 희망제작소는

-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실천하는 싱크앤두-tank Think & Do Tank 입니다.
-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의제의 정책적 대안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민간독립연구소입니다.

- www.makehope.org
- facebook @ hopeinstitute
- 02-3210-0909

THE HOPE ISSUE

희망이슈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시민에게 공유하는
이슈페이퍼입니다.

No. 57
2020. 09. 24.